

교육감 선거 앞두고 지지 선언 잇따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이남호·대학민주동문회, 천호성 후보 지지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단체와 현장 기반 단체들이 잇따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 구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단은 이남호 후보를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는 천호성 후보를 각각 공개 지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단은 18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윤미면 전북도 협의회장을 비롯해 전북 12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단이 참여했다.

회장단은 지지 선언문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전북교육의 방향을 깊이 고민한 끝에 이남호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실질적인 교육성과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념과 구호를 넘어 기초학력과 미래역량을 균형 있게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전북교육이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장단은 이 후보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실용적 교육정책, 학력 회복 디지털·과학 기반 미래교육, 지역과 함께 하는 책임교육 실현 등에서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지지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판단"이라며 "전북교육이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협의회는 5·18민중항쟁 46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은 학생을 출 세우는 경쟁이 아니라 시민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 민주주의를 지켜온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상생의 학교 공동체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 간 갈등이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교육 현실을 넘어 교육공동체를 다시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교육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이해해온 인물이어야 한다"며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복원할 책임자는 천호성 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주권자의 이름으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천호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호성 후보는 이날 전국사목 회의로부터 '평장사민후보' 인증서를 수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교육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학력 회복과 미래역량 강화를,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공동체 회복과 입시경쟁 완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서로 다른 교육 철학을 강조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 방향에 뜻을 모았다.

입시경쟁 완화·교육 불평등 해소 뜻 모아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협약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맺고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개혁 방향에 뜻을 모았다.

천 후보는 지난 17일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서열 체계와 과도한 입시 경쟁이 초·중등 교육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교육의 방향을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핵심 과제로는 대입제도 개편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통해 입시 부담을 줄이고, 초·중등 교육이 입시 준비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안이다.

또 대학 및 고교 서열 구조 개선을 위해 전북 지역 국·사립대를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로 전환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관도 전환을 통해 고교 서열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실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천호성 후보는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대학 서열 폐지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연구와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의 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1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단은 18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2 같은 날,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2 같은 날,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전주교육지원청, 중학생 대상 공학·의약학 진학 설명회

전주교육지원청이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날라진 대입, 미리 준비하는 공학·의약학 계열 맞춤형 진학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학지도 전문 교사의 입시 분석 강의, 실제 합격생 사례 공유, 대학 입학사정관의 진학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설명회는 공학 계열과 의약학 계열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28일에는 공학 계열 설명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진학지도 전문 교사가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 변화에 따른 진형 분석, 과목 선택 전략 등을 안내한다. 이어 실제 공학 계열 진학에 성공한 대학생 멘토가 고등학교 생활 경험, 탐구 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합격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학부모와 소통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의약학 계열 설명회가 진행된다. 진학지도 전문 교사가 의약학 계열 진학 전략과 학업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이 지역의 사례 및 선발 전형 면접, 학생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입체적 진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입시 불안을 줄이고, 고교 진학 이후 학업 설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는 각 학교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국제 교육교류 본격... 교실 속 글로벌 교육 실현

전주하가초, 리오스 초등학교와 함께 '글로벌 교실' 운영

전주하가초등학교가 리오스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교실 속 글로벌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전주하가초는 교육부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EIU)이 주관하는 '2026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 27일 리오스 교사 2명(Saysouly Sorphouhieng, Davanh Sosingvay)을 맞이했다.

이들 리오스 교사들은 부인 좌우 2 주간의 수업 참관과 한국 교육 시스템 적응 과정을 거친 뒤, 이번 주부터 전 학년 수업에 본격 참여하며 전주하가초 교사들과 함께 교과 연계형 다문화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언어·문화 소개를 넘어 학생들의 실질적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시민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주하가초에서는 △리오스 문화 이해 체험 수업 △영어 그림책 읽기 및 토칭 클래스 등 동아리



전주하가초등학교가 리오스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교실 속 글로벌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활동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수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학생들은 외국인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를 통해 편견을 줄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키워가고 있다.

또한 리오스 교사들에게는 한국의 에듀테크 기반 수업 환경과 초등교

육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교육 교류의 상호 발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성하 전주하가초 교장은 "리오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깊이 교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국제교류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이남호 측 "관계자 부적절 행동 사과"

금전 거래 의혹 관련... 선거사무소, 공보담당자 즉각 배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가 관계자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선거운동에서 즉시 배제했다.

선거사무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도민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관계자를 즉각 배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5월 15일 이남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내부 확인 결과 언론인 출신 공보담당자와 언론인 선배 간 개인적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인사는 공보 업무에서 사퇴하고 향후 일체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남호 후보 선거사무소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깨끗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2026년 글로벌 학생과학캠프에 참여하는 전북 학생들.

전북 미래과학 꿈나무, 글로벌 역량 키운다

전북과학교육원 '글로벌 학생과학캠프' 23일까지 일본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강진순)은 도내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글로벌 학생과학캠프를 18일부터 23일까지 일본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 중 선발된 24명이 참여했으며, 4개 조로 나뉘어 교육 연구관과 교육연구사의 지도 아래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도쿄·요코하마·츠크바·하코네 등 주요 과학도시를 방문해 일

본의 첨단 과학기술과 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또한 우주 개발 핵심 기관인 츠크바 우주센터, 고에너지 가속기연구기관 자동차 기술이 집약된 니스모 스포츠 항공 장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ANA 블루해어,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팀랩 플라넷 등을 방문해 기초과학부터 첨단 응용 기술까지 폭넓은 과학 세계를 접한다.

이와 함께 도쿄대학교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과 요코하마 사이언스 프론티어 부설 중학교 방문을 통해 해외 교육 현장도 경험한다. /오상근 기자